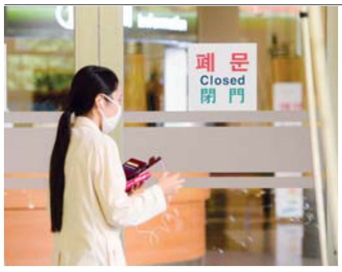
News p/3



삼성서울병원 국민 환원론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제3237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6



제7홈쇼핑 청와대 낙하산



메르스 불신지옥

3차 유행마저 우려… 정부대응 국민 신뢰 붕괴
외국선 기피국가로 전락… 국격 하염없이 추락
"메르스와의 전쟁선포하고 인프라 총동원해야"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확산되고 있다. 3차감염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이미 5000명을 넘어선 격리자는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현재 감염자도 5명이 늘어 총 150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메르스가 불과 20일만에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마스크 공화국과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관광을 취소한 해외관광객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7월에 있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르스 이전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소매유통과 문화·여가생활 등 내수소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외출을 꺼리면서 놀이공원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영화관, 놀이공원, 프로야구,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객도 급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홍콩에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UAE,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등이 한국여행 자제를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 진원지까지 된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아직도 긴장감이 부족한 모습이다.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는 아직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3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보호장구 추가 지급은 커녕 이미 지급된 장비조차도 개인별 치수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15일 신규 메르스 환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첫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5명이 된 셈이다. 3차 감염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4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감염자는 기존의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고 있는 3명, 즉 1번(68), 14번(35), 16번(40) 환자와의 노출 없이 추가로 감염된 것을 의미한다.

4차 감염자에 의해 5, 6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방역 대상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 간 불신도 증폭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는 관리대상 범위 내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자택 또는 병원 격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봉쇄·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않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발병 현황
6월 15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 150 명
사망자 : 16 명
감염 의심자 : 5897 명
(양성 149명, 음성 5748명)
검사 진행중 : 152 명
격리자 : 5216 명
(자택 4925명, 기관 291명)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당국의 대응책은 전부 실패했다"며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사진=로이터연합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북한군 10대 최하급 병사, 상습구타 피해 귀순
작년 최전방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사고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직급은 하전사로 알려졌다. 하전사는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10대 북한 병사의 귀순이유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상습구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 군대의 내부적 병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이었던 윤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슴과 턱, 빰을 가격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윤 일병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온 육군 22사단 소속 임모 병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동료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낳은 결과였다.

당시 세간에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 군내 가혹행위가 한국군의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이 같은 문제가 북한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군내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사고의 배경에는 분명히 군의 부대관리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전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다보니 매너리즘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60여년이 흘렀다. 60여 년간의 정전체제가 남·북의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책선을 중간에 둔 채 남·북 군대 모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지난해 총기난사로 5명의 동료를 죽이고 7명을 부상입힌 임모 병장의 모습. 초소에서 자신을 놀리고 비하하는 내용의 그림과 글을 보고 격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충북 단양군 기우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북 단양군이 15일 단성면 중방리 마당바위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운데)가 초헌관, 이범윤 단양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이종현 단양군농업협의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차례로 잔을 올렸다. /연합뉴스

북한 6·15 맞아 화해 제스처

억류된 우리 국민 2명 내일 송환 통보
"당국 간 대화하자"… 北정부 성명 발표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오는 17일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송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정윤아기자

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 "거부하면 재의"

새정치연합 중재안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윤정원기자 garden@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대한 합의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주로 (삼성)계열사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재확산 우려에 병원을 부분 폐쇄한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총리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편성해 삼성서울병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쏟아부어
박영선 “무늬만 공익재단… 면세혜택 없애고 국민에 병원 환원해야”

또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이사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삼성생명은 2006년 230억원, 2007년 157억원 등 이전부터의 기부행위를 계속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공공기관발 ‘정규직 호봉제’ 파괴 바람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저(低)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 가량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와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수정된 추진안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행이 확정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공공분야 외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6대 분야에서도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밝힌 바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사례로 정규직 연공급(호봉) 임금을 꼽으며 공공기관부터 이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에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 노사가 앞장서 나간다면 다른 민간업체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혁신안에 당 대표직 걸겠다”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 대표직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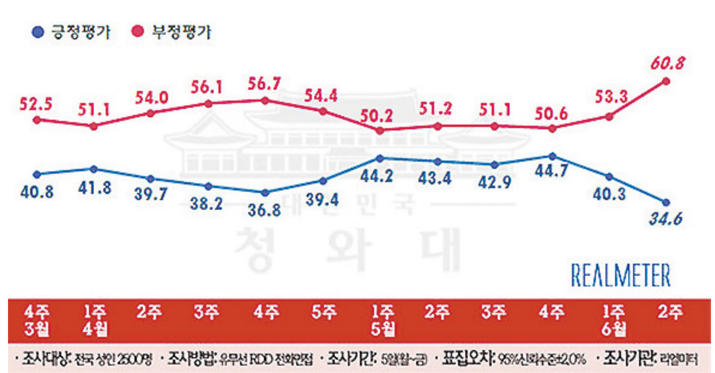
15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혁신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안이 실천되는데 당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여의도의 담장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파 청산부터 공천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달라”며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고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 대표에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5년 6월 2주차

단위: %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주간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연속 하락해 34.6%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2주 동안 10.1%포인트나 하락한 결과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동안 10%p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 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리얼미터 제공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행사 시작 전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출석 주식·주주 수 집계, 위임장 확인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 질서 유지 권한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와 같은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 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섰다.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과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警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라 조치"

경찰이 강제 연행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자 처벌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경찰 측은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자가 격리자 신원파악과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병원에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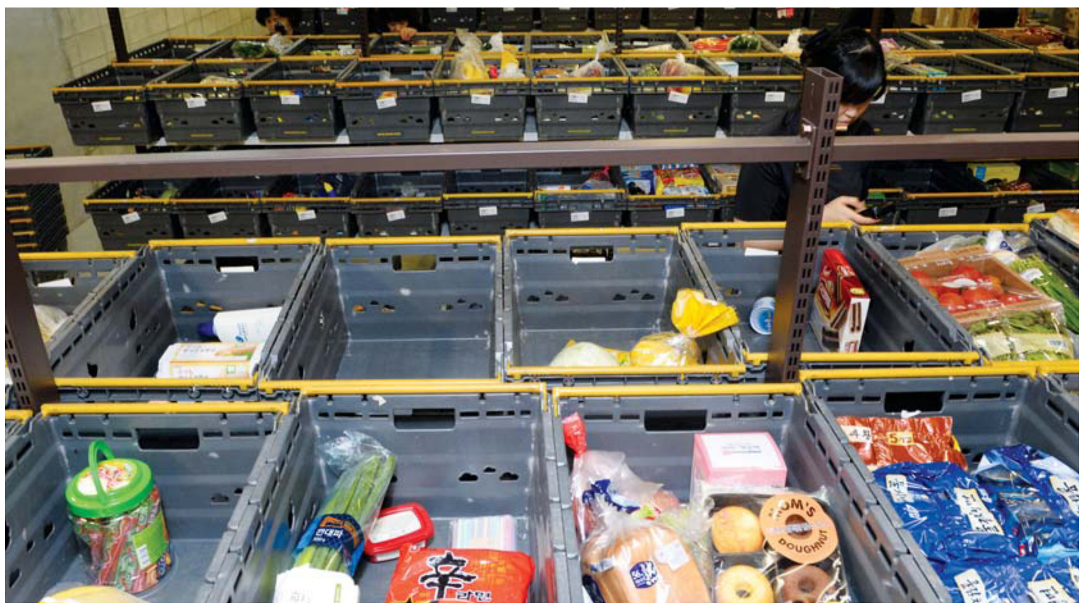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메르스 의심 환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2시쯤 보건소 측의 요청을 받아 A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옮긴 바 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지만 이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 총 918명의 신원파악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확인하지 못한 3명은 보건당국이 전달한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격리 대상 이름만 전달된 경우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원기자 hong@



메르스 여파 온라인 몰 배달 주문 증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온라인 몰·배달 주문이 증가한 15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이 주문한 배달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상고법원 논의 1년… 법조계 '찬성론' 대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원기자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 교수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56)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와 연세대에서 27년여간 헌법 분야 교수로 재직했다.

연세대에서는 법과대학 부학장과 법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회장과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전 신임 원장이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헌재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한 기관이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박범훈·박용성, 혐의 부인

중앙대 특혜 의혹 첫 공판

"모든 혐의 위법성 없다"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 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이제 맘편히 진료 받으세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종합진료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병원이다. 이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되며, 중환자실도 폐렴환자는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연합뉴스

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관련 KT선수들 소환 조사

전창진(52) 프로농구 감독의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감독이 몸담았던 KT 구단 선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KT 구단 주전 선수인 조성민 선수와 이날 오후 3시에는 KT 구단 후보 선수인 우승연 선수를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초 KT 구단과 전 감독의 현 소속 구단인 KGC의 단장과 사무국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3~4쿼터에 일부러 주전을 빼고 후보 선수를 투입해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선수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감독은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3월 치러진 5경기에 대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2배 가까운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감독은 지난 11일 경찰과 협의 없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수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순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이홍원기자 hong@



메르스 4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3차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차 감염 본격화 되나

메르스 추가 확진자 5명 중 3명이 4차 감염

메르스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15일 메르스 감염자가 5명 추가돼 환자는 모두 15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이날 2명 더 발생해 16명이 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 가운데 건양대병원 의료진과 건국대병원 환자 등 5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28번 환자(58)와 81번 환자(61) 등 2명이 숨져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다. 28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지만, 지난달 5월15~17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부인을 간호하다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81번 환자(61)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감염된 경우다. 이날 사망자 모두 평소 건강했던 성인으로 메르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이 '4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다. 147번 환자(46·여)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123번 환자(65)와 같은 동네의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4차 감염'에 해당된다.

148번 환자(39·여)는 지난 3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36번 환자(82, 6월3일 사망)에게 심폐소생술한 의료진이다. 36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6번 환자(40)가 바이러스를 옮긴 3차 감염자다.

150번 환자(44)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76번 환자(75·여·6월10일 사망)가 지난 6일 찾아가 건국대병원에서 체류하다 감염,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3차 감염으로 분류된다. 46번 환자(55)는 지난 달 27일 14번 환자(35)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체류했고, 149번 환자(84·여)는 지난달 22~28일 16번 환자(40)가 입원한 대전 대청병원에서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선 의사 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차 이송요원과 동승자 등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데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 환자에 이어 또 다른 의사도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까지도 단순 '응급실 체류자'로 분류됐는데, 삼성서울병원측은 이 의사가 당시 내과 전문의로 응급실 밖에서 근무를 한 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사는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에 있었고 약 2주 동안 더 근무하며, 환자 두 명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방역 대처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응급차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을 가까이 장갑조차 끼지 않고 70여 명의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확진된 응급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응급실 안전 요원도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다.

이렇듯 병원의 직·간접 관계자들이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3차유행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유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제7홈쇼핑에도 청와대 낙하산 인사

대외협력실장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왕보경씨 선임

박근혜정부가 관피아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며 낙하산 근절 약속을 했지만 7월 개국 예정인 공영홈쇼핑(제7홈쇼핑)에도 청와대 출신 인사가 채워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7홈쇼핑 대외협력실장에 지난달 청와대 연설기록비관실 행정관 출신의 왕보경(50·**사진**)씨가 선임됐다.



왕 씨는 KBS 방송작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연설문 작성을 도왔다. 그 인연으로 2013년 3월 청와대에 입성해 지난 2월까지 2년간 청와대 연설기록비관실에서 근무했다.

왕 씨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김문수 전 지사(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를 도왔으며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업계는 왕 신임 실장의 선임을 제7홈쇼핑 낙하산 인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7홈쇼핑은 중기제품·농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을 설립 목적으로 하지만 이미 농수산TV로 출범한 NS홈쇼핑과 중기전용 TV홈쇼핑으로 설립한 홈앤쇼핑이 있다"며 "다시 같은 목적으로 TV홈쇼핑을 세운다는 것은 정부의 관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낙하산 인사 척결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상업성도 없는 제7홈쇼핑과 같은 기업을 설립해 자리를 일부러 만들고있다"고 말했다.

제7홈쇼핑은 왕 실장외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1명 더 있으며 대관 파트쪽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도 3~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7홈쇼핑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를 출자해 만들었다. 정부가 TV홈쇼핑을 운영해 수수료율을 낮춰 이익 추구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만 집중하겠다는 명분 아래 설립됐다.

제7홈쇼핑 관계자는 "왕보경 실장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5월 입사했다"며 "오랜 방송 생활로 관련 업무도 잘 알고 공직에도 머물러 공익이라는 제7홈쇼핑 설립 목적에 맞겠다는 생각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LG전자, TV사업 2분기도 먹구름

1분기보다 판매량 감소 전망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가 관건

LG전자의 TV사업이 2분기에도 암울한 성적표를 손에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크지 않고,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아 하반기에도 반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전자·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에 액정표시장치(LCD) TV 700만대를 판매할 전망이다. 이는 전 분기 보다 4%가량 감소한 수치다.



TV판매감소는 2분기LG전자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예상된다. LG전자의 TV사업을당당하고있는홈엔터테인먼트(HE) 사업부는 올해 1분기 62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 TV 사업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HE 사업부는 LG전자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TV 시장은 2분기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중국 노동절 TV 판매가 역성장하는 등의 수요부진과 환율부담, LCD 패널 가격의 더딘 하락이 맞물리면서 세트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세계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도 침체된 시장 상황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전 분기 보다 3% 가량 판매량을 끌어 올렸지만 LG전자는 오히려 판매량이 쪼그라든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신제품 출시 효과가 미미한 것이 LG전자의 부담으로 지적된다. 1분기에는 지난해 구모델의 판매가 대부분이었지만 2분기에는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렸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울트라 올레드 TV(**사진**) 등 신제품을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잇달아 출시했다. 하지만 울트라 올레드 TV는 비싼 가격이, 슈퍼 울트라HD TV 등은 차별성 과제로 떠올랐다.

하반기 시장상황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LCD TV 수요부진, 신흥시장의 통화 약세, 원·달러 환율 강세 등의 불안요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LG전자는 하반기에 울트라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T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거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시장이 회복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슈퍼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등을 앞세워 프리미엄 전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할 것"

금융업 경쟁체제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법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은 담보대출 위주, 증권은 위탁매매 전념 등 금융회사가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7대 기준도 나왔다.

여기에는 ▲사전 규제→사후 책임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시대 적합 규제 ▲네거티브 방식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 맞춰 경쟁 촉진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정비 ▲금융사 역량에 따른 차별규제 등이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도 개혁해야 한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 개혁과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인사·보수·성과평가시스템(KPI)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

지방은행 '수도권 상륙작전' 성공할까

경기도 진출 가속화 시장 선점 경쟁 치열

지역기반 한계 극복 차별화 하는게 관건





/각 사 제공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초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기도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깃발 꽂기'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본토를 벗어나 지역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경기도를 새로운 격전지로 삼아 수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소매·기업금융 타겟…"광역권 네트워크 구축"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전북은행이다.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은 지난 4월 지방은행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번 개점으로 전북은행은 서울 13개, 인천 5개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9개 점포망을 갖추게 됐다.

이는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것이다.

그간 소매금융을 앞세워 영업을 펼쳐온 전북은행은 수원지점의 영업성과를 보며 경기도 지역에 추가 점포개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그간 축적된 지역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과 지역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망도 짜여졌다.

부산은행은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에 첫번째 영업점인 '시화공단지점'을 열었다.

은행이 위치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는 산업면적 640만평에 입점 업체만 약 1만8000여개에 달한다. 또 기존 부산은행 거래처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향기업들도 다수 진출하고 있어 점포를 개설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박재경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부산은행은 이미 2013년부터 수도권인 인천의 남동공단 지점을 통해 경기도 시화공단까지 아우르는 영업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며 "이번 경기의 시화공단지점은 우선 부·울·경 연고 기업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시중은행과 경쟁 치열…수익창출 여부 의문

DGB대구은행은 오는 7월 중소기업 금융을 타겟으로 경기도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집행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첫 점포로 반월공단지점 개점을 확정했다. 반월공단지점에는 DGB캐피탈 안산지점이 동빌딩 2층에 입점해 지역은행 최초로 복합점포 형태로 개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현재 본부 내 TFT를 구성해 반월, 시화공단 기업고객 분석과 전략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기도 1호 점포 지점장으로 기업금융 전문가인 박상섭 지점장을 배치했다. 개점 초반 대구·경북 연고 기업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점차 영업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이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경기도에 지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기반의 한계를 극복할 차별화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으로 지방은행들은 지역적 한계에서 한발 더 벗어나게 됐지만 은행권 전반적으로 지점 수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외형 확대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꼽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관람객 200만명 돌파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화폐박물관 관람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12일 개관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이날 200만번째 입장객과 200만 1번째 입장객을 맞아 해당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한 200만명 돌파 후 입장한 모든 관람객들에게 화폐박물관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국가중요문화재(1981.9 사적제280호)로 지정된 화폐박물관은 창립 65주년을 맞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과 돈과 나라 경제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총 2만여점)하고 있다.

아울러 13개 전시실(면적 2,265㎡)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국내외 화폐와 소장 미술품 전시회, 화폐 기획전, 화폐문화강좌, 경제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선보이고 있다. /백아란기자

'최고 60% 환율우대' 농협銀, 환전페스티벌



NH농협은행은 여름을 맞아 최고 60%환율우대혜택을 주는 'Hot한 여름! Cool한 혜택! 여름환전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8일까지 농협은행에서 환전하는 고객은 통화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 50%의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금액(USD 1000·EUR 1000·JPY 100,000)이상을 환전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10% 환율우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농협은행은 USD 환산 기준 300불 이상 환전 고객 120명을 추첨해 ▲NH기프트카드 ▲애플 뉴맥북 ▲아이패드 Air 2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농협은행 고객들께서 보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휴가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환율우대 서비스와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알리안츠생명,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시스템' 도입 알리안츠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설계사(어드바이저)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연중 언제라도 보험 가입 과정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알리안츠생명 제공

전체 손보사 설계사 실적… 전년比 40% 증가

NH농협손보는 부진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이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NH농협손보 생산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10대 손보사 설계사는 총 16만2609명이다. 또 이들 설계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보험료는 총 21조142억9500만원으로 전체 손보사의 원수보험료(72조6483억7400만원) 중 28.9%를 차지한다.

이는 보험사가 설계사, 임직원, 대리점, 중개인,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뜻하는 총 원수보험료에서 순수하게 설계사가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만을 계산한 수치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1억2900만원으로, 2013년 설계사 1인당 생산성(9300만원)보다 40% 증가했다.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로 설계사 1명이 1억7900만원의 보험료를 가져왔다. 이어 롯데손보(1억6500만원), 흥국화재(1억5400만원), 동부화재(1억3900만원), LIG손보(1억3700만원) 순으로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이들 중 NH농협손보는 가장 낮은 5300만원을 기록했다. 한화손보(7100만원), MG손보(8700만원)도 1억원에 못 미치며 하위권을 형성했다.

전년 대비 설계사 생산성이 가장 좋아진 곳은 롯데손보다. 1인당 생산성이 93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76%나 증가했다. MG손보(50%)에 이어 LIG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도 40%대 증가율을 보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코드는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매출이 저조한 '비가동·저능률 설계사'를 줄이고 매출과 정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관리 등을 통해 표준조직화한 것이 설계사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생소했던 '틈새평형' 대세로 급부상

<69~79㎡>

소형보다 넓고 가격은 중형보다 저렴해 인기

아파트시장의 비주류로 여겨지던 틈새평형이 대세가 되고 있다. 가족구성원 감소, 다운사이징 바람 등에 힘입어 소형과 중형의 중간인 '틈새평형'이 인기를 끄는 것이다. 활용도와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실속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59㎡(25평형)와 84㎡(33평형)으로 대표되던 중소형아파트가 세분화되고 있다. 59㎡와 84㎡ 사이에 69㎡, 72㎡, 75㎡, 79㎡(26~30평형) 등 기존에 없던 주택형이 생겨난 것.

이들 틈새평면은 84㎡와 구조가 비슷해 확장 시 중형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 특히 최근에는 주소비층이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하향 조정되면서 굳이 84㎡의 공간이 필요치 않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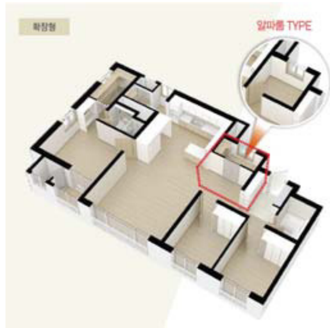
이같이 특화된 틈새평면은 최근 분양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지난 3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에일린의 뜰'은 74㎡가 다른 타입을 제치고 기타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인 109.6대 1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이 올 초 공급한 '창원 감계 푸르지오' 72㎡ 역시 230가구 모집에 1241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4.65대 1을 나타냈다. 이는 84㎡ 경쟁률(3.31대 1)보다 높은 수치다.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천안 백석3차 아이파크'도 74㎡A형이 23.8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건설사들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분양가 부담은 낮추면서 중형과 같은 공간감을 확보한 다양한 틈새평면을 내놓고 있다"며 "비주류던 틈새평면이 이제는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미건설은 이달 말 청북 청주 호미지구에서 공급 예정인 '우미린 에듀파크'에 72㎡ 93가구를 배치했다. 산성초, 금천중, 주성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 거리인게 특징이다.

효성이 경기도 용인 서천동에 공급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도 458



용인서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74A타입 평면도.

가구 모두를 74㎡ 틈새평면으로 설계했다. 밀알유치원, 서천초·중(혁신학교)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인접했다.

한양이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은 64~84㎡, 총 420가구 규모다. 이 중 틈새평형인 64㎡와 76㎡가 314가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촌읍 사무소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다목적 강당, 도서관 등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의 '정읍 코아루 천년가'도 전체 437가구 가운데 74·79㎡가 141가구를 차지한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효과를 누릴 수 있는 3.5-bay 혁신평면으로 설계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맞춤형 혁신공간도 선보인다. 현관에 팬트리를 제공해 다용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방에 맘스데스크(일부세대)를 설치해 보다 넓은 수납공간을 갖췄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CEO지식나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체결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지난 1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양평원 회의장에서 여성인재육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원에서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양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CEO 지식나눔 제공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인천 6% 이상↑

서울·울산은 하락세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울산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주택보증이 지난 5월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62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13% 상승했다.

지방(0.01%)의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0.35%)과 6대광역시(1.23%)는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6.16%)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은 지역 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계양구와 남구 지역에서 이달 신규물량 공급이 안된 점이 평균 분양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전남(1.85%)과 대전(1.56%)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2.52%)과 울산(-2.01%)은 지난달에 비해 평균 분양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기존 평균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용산구와 남구의 신규 민간아파트 물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분양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총 7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4개 지역 보합세를 보였고, 6개 지역은 하락했다.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2만8810가구로, 전월(3만2414가구) 대비 3604가구 하락했다. 1년 전(1만6517가구)보다는 1만2293가구 증가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19일 오픈

호반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C1블록에 공급하는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을 오는 19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15~29층, 16개 동, 전용면적 ▲72㎡ 406가구 ▲84㎡ 510가구 ▲97㎡ 504가구 등 전체 1420가구다.

옥길1초등학교 예정용지가 도보 거리이고, 이마트(상업시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목동·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서해안로가 지구 바로 옆을 지나고, 국철1호선 역곡역과 1·7호선 환승역 온수역을 이용 가능하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100%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인근 범박지구 입주 4년차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1054만원대의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입구에 '스마트 전신 소독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전신 소독게이트란 유해세균과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주는 최첨단 살균 소독기로 주로 병원, 산후 조리원 등에 설치된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입장 전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시 미 FDA에서 인증 받은 무독성 살균제가 초정밀 노즐에 의해 초미립자 형태로 사람 키 높이에 따라 자동 분사된다.

모델하우스는 부천 양지초등학교 맞은편, 괴안동 248-2번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12월이다.

/박선옥기자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 이달 분양

우미건설이 충북 청주시 호미지구에서 '우미린 에듀파크 1·2차' 1291가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호미지구는 청주 용담동 일원에 7만7304㎡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이다. 2개 블록으로 구분돼 1차는 전용면적 84~136㎡ 390가구, 2차는 72~113㎡ 901가구로 개발된다.

청주 명문고등학교로 꼽히는 주성고교를 비롯해 산성초교와 금천중교가 모두 도보 거리다. 호미골 체육공원, 용정축구공원, 명암유원지가 가깝다. 롯데마트, 금천광장 상권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동측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오창, 오송, 세종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3차 우회도로 제1구간인 효촌~휴암, 제3구간인 오동~구성 순환로가 개통됐고, 제2구간 휴암~오동은 2016년 9월 개통될 예정이다.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 투시도.

단지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남향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다. 게스트하우스, 카페린,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남녀구분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원격제어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도 적용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청주 호미지구는 주변에 풍부한 녹지와 우수한 조망뿐 아니라 용암·용정지구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청주시 주중동 517-1번지에 마련된다.

/박선옥기자

기준금리 인하… 은행株, 상승흐름 탄력

| 마켓인사이트 |

증권가, 4분기 반등 전망… '비중확대' 권고 "은행 예금보다 예금주 사는게 유리" 조언도

'은행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4분기부터 상승흐름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손익 추정치가 이미 반영된데다 금리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론 수익이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75%에서 1.5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주에는 긍정적"이라며 '비중확대'를 권고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고 추가 인하돼도 내년 1분기부터는 순이자마진(NIM)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며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 은행주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은행주의 NIM이 0.03%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하락 추세는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손익 추정치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은행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 대출의 부실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었던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은갑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경제회복 기대감이 생기거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주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증권가에선 톱픽(최선호주) 종목으로 KB금융, 우리은행, BNK금융, 기업은행, JB금융지주 등을 꼽았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 대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출증가율은 은행 이자이익을 방어하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기업은행'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구용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는 저성장 경제 구조에서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이란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배당주 투자매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인 연구원은 "은행주의 배당수익률은 1.7~3.0%로, 1% 중반인 예금금리보다 높다"면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주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연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수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은행에 예금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은행주를 사라"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연금저축펀드로 대출 받는다

NH투자증권
업계 최저금리 연 3.0%
평가금액 50%까지 가능

NH투자증권은 15일부터 증권업계 최저 금리로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출시한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는 계좌 평가금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증권업계 최저 금리인 3.0% (15일 기준)이다. 대출기간은 180일이며, 만기 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연금저축펀드계좌 가입고객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출금하거나 해지하여 세제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를 일시적인 자금 필요 때문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시했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 금리로 내놓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점에서는 연금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차별화된 연금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고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연금계좌를 통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지 예측을 비롯해 은퇴자금 설계가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100세시대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기존 가입 고객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 IRP Double Up 이벤트'를 오는 30일 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

삼성 vs 엘리엇 힘겨루기… 증권가도 갑론을박

"합병 포기할 수도"
주총 표대결 승리 어려워
해외소송 가능성도 발목

"원천 무산 어려워"
무산땐 한국 평판에 먹칠
삼성 우호 外人 배제 못해

금융업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가능성, 합병 찬반 여부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화투자증권 이상원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이 7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합병이 성사돼도 해외소송까지 갈 가능성 때문에 삼성 측이 이번 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삼성 측의 우호지분이 19.8%인데 비해, 7.1%를 소유한 엘리엇 측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6.7%나 된다"며 삼성이 합병을 강행할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엘리엇 측 손을 들어주며 어려운 표대결을 할 것임을 예상했다.

이어 "해외소송에서 합병비율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조~3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삼성 측이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로 10%p 늘리는데 드는 비용은 1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이 잠재적 비용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9일 이번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엘리엇은 의견을 같이하는 주주 동의를 구하겠지만, 삼성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합병을 원천 무산시킬 지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 중 인덱스 펀드는 엘리엇의 행동주의에 적극적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삼성 우호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합병 찬반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전날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합병이 무산되거나 (삼성그룹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면 삼성의 평판, 대한민국의 평판에 먹칠을 하고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닌 취약성을 세계에 노정하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말해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황 회장은 "합병 발표 후 주가가 즉시 오른 것은 시장에서 합병을 반긴다는 얘기"라며 "국민연금이 굳이 반대편에 서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내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8곳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대조된다.

이날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합병이 무산될 경우 "삼성물산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가치의 정상화가 진행됨으로써, 향후의 상승여력이 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고했다.

반대로 합병이 성사될 경우 "합병법인 주가의 상승여력이 우리의 기존 일반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기준을 적용하면 -8.6%이며,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컨센서스 중간값을 적용해도 5.0% 상승여력에 불과하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 모두 차익실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삼성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대해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한 합병 포기란 가설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며,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합병 무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전거래일 대비 1600원 (-2.34%) 하락한 6만6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정경기자 jkljkl@

LG전자, 中 스마트폰 '온라인 집중' 공략

현지 소비성향 반영
오프라인 매장 철수
온라인 마케팅 강화

LG전자가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28일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에 이어 지난 8일 차이나텔레콤에서 전략 스마트폰 G4의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LG전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시키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LG전자가 지난 5월 19일 베이징에서 징동 그룹 왕쌰오쏭 통신총괄, 퀄컴 션진 부총재, LG전자 중국법인장 사장 신문범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4 중국 출시 행사를 열었다. LG전자 중국법인장 신문범 사장이 G4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지난해 출시된 G3부터다. 중국 시장의 경우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에 거의 미미했던 온라인소비가 30% 가량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는 고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 내에서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인 샤오미의 방식과 비슷하다.

LG전자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를 통해 제품의 기능을 알렸고, 500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가 중국 시장에서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G4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예약 판매 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

전작인 G3의 중국 판매량 목표가 30만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대이상의 반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10만대 전량 판매되기 힘들지만 G3의 경우 대부분 실구매로 이어졌다"며 "G4역시 대부분 실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53%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은 국내와 달리 빠르게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며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것 같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가전 온라인 쇼핑몰 징동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가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G4의 초반 성적을 기반으로 1% 미만인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충전소 부족·비싼 가격… 투싼ix '안 팔리네'

<현대 수소연료전지차>

2013년 양산 후 273대 출고
국내서 달리는 차 29대 그쳐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FCV) '투싼ix FCV'가 부족한 충전소와 비싼 가격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투싼ix FCV의 출고 대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273대에 그쳤다.

출시 첫 해인 2013년 76대, 지난해 128대였으며 올해 1~5월은 69대로 집계됐다. 이 실적은 현대차의 애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까지 1000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273대 가운데 국내에 있는 차는 29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현대차 투싼ix FCV.

미국(116대)과 유럽(117대)으로 나갔다.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업체 가운데 최초로 수소차 양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보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충전소가 11곳밖에 없다. 서울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상암동 등 두 곳뿐이다.

지방에는 경기 용인·화성, 인천, 제주, 울산, 대구, 무안 등지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만 10곳 가량의 충전소가 있다. 미국에서는 구입이 아닌 리스 방식으로만 투싼ix FCV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70대의 리스가 이뤄졌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투싼 수소차의 국내 가격을 1억5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대폭 낮췄지만 일반 이용자가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금액이다.

수소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민간 보급사업도 없어 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BMW코리아
광주 상무 전시장 오픈
패스트레인 서비스 지원



BMW코리아 공식딜러 한독모터스는 광주 상무대로에 BMW 전시장과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를 15일 개점했다.

이번에 문을 연 BMW 광주 상무 전시장은 광주 지역의 두 번째 전시장이다.

BMW 광주 상무 전시장은 연면적 2956.74㎡(약 894평)에 지상 4층 규모다. 총 12대 차량을 전시할 수 있으며 최대 주차 대수는 36대다. 1층과 2층은 전시장과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로,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는 총 3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하루 최대 20대까지 필터,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교체 등의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정용기기자

아우디 '르망 24시간' 3위
17년 연속 시상대 올라

아우디가 지난 주말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열린 83회 '2015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3위와 4위, 7위를 차지했다.

아우디는 1999년 대회 첫 참가 이래 17년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15일 사측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우승의 주역인 앙드레 로테레르, 마르셀 패슬레르, 베누아 트렐뤼에 선수의 '아우디 R18 e-트론 콰트로' 차량이 3위를 차지하며 경기를 마쳤다.

로테레르 선수는 랩타임 3분 17.475초의 최고 속도를 기록하며 르망 24시간 대회의 베스트 랩타임 신기록을 세웠다. /이정필기자 roman@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본관에서 실시된 단체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금호아시아나, 메르스 뚫고 헌혈 봉사

혈액 수급난에 임직원 팔 걷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메르스 확산에 따라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단체 헌혈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11일과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틀 동안 실시된 헌혈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145명이 참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과 24일 서울시 오쇠동 본사와 김포공항에서 헌혈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등 그룹 계열사와 지방사업장에서도 내달 중순까지 헌혈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는 2004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맺고, 2006년부터 신입사원 입사교육에 헌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사랑의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 증서 총 1만4877장을 주요병원 어린이병동에 기증했다.

기증된 헌혈증서는 어려운 환경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희귀난치병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인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헌혈 전 철저한 검사와 문진, 소독을 통해 메르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앞으로도 전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랑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대한항공, 6조7000억 규모 항공기 60대 도입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와 보잉에서 최소 6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이상의 항공기 60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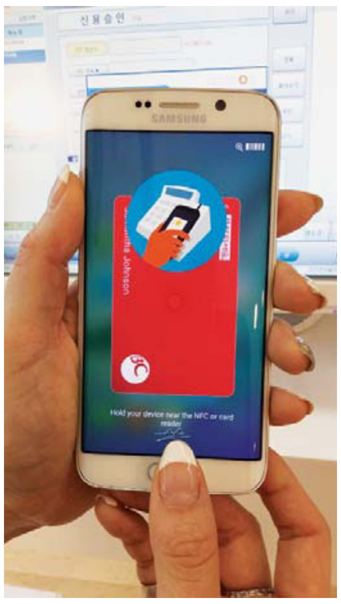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A320 기종과 B737기종을 섞어 모두 60대를 주문할 계획이다. 두 항공기의 가격은 최신모델 기준 대당 최소 1억600만 달러(약 1184억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오후 파리에어쇼에서 신규 항공기 구매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A320 기종을 도입하면 이는 이 회사의 첫 에어버스 단일통로 항공기 도입 사례가 된다.

/양소리기자

늦어지는 삼성페이… 구글페이에 밀리나


삼성페이 실행화면.

출시일 두달 가량 연기
구글 美시장 선점 가능성
네이버페이 출시도 부담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 출시가 가 두 달 가량 미뤄지면서 안드로이드 페이에 밀려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15일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삼성페이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삼성페이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요소에 의존할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사용할 수 없고, 보안 토큰 저장소로 활용될 TEE(Trusted Executable Environment)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다.

지난달 공개된 구글의 차세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M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안드로이드 페이를 지원한다. 이 매체는 안드로이드 M은 구글에게 TEE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삼성페이와 안드로이드 페이가 같은 공간을 두고 경쟁할 것이며 구글이 삼성페이를 밀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반박 내용도 함께 전했다.

삼성페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NFC를 사용할 수 있고, 이미 미국의 주요 3개 통신업체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삼성페이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삼성페이가 인수한 루프페이의 창업자 윌 그레일린은 블로그를 통해 해당 내용을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안드로이드 진영 내 삼성페이와 안드로이드 페이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LG전자, 모토로라, HTC 등이 안드로이드 페이의 든든한 아군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야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출시 초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중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뿐이다. 두 모델에만 한정된 삼성페이 서비스가 출시초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해 미국 내 주요 은행과 협력 작업을 진행 중지만 당초 계획보다 안정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가 줄이어 기다리고 점도 부담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오는 25일 네이버 페이를 정식 출시한다.

안드로이드 페이는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통돌이 대포물살 확인 하세요"

LG전자
통돌이 세탁기 새 광고

LG전자는 자사 통돌이 세탁기의 강력한 세탁력을 강조하는 '통돌이 대포물살'편TV CF를 최근 온에어 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전자동 세탁기만의 고유한 브랜드명인 '통돌이'를 처음으로 공개한 신규 광고는 LG전자의 핵심 기술인 DD모터가 통 전체를 회전시키면서 만드는 강력한 대포물살의 세탁력을 부각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LG전자 측은 통돌이 세탁기의 기술력은 모터의 힘으로 세탁통을 힘차게 돌리면서 강력한 물살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일부 통돌이 세탁기는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통 전체가 아니라 하단의 세탁판만 돌아가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세탁판은 물론 세탁통까지 회전하며 강력한 물살을 만들어내는 진짜 통돌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가 핵심 기술인 DD모터 통 전체를 회전시키면서 만드는 강력한 대포물살의 세탁력을 부각하는 콘셉트로 TV CF를 제작했다.

제주항공, 출장비 부담 덜어준다

기업 임직원 항공권 혜택
국제선 2만5000원 할인

제주항공은 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다 폭넓은 항공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우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우대서비스는 공공기관, 정당, 협회와 단체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이상 일반기업체면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에서 무료로 하면 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기업체 가입과 임직원 개별등록을 완료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우대 임직원쿠폰이 제공되며 임직원 외에 가족들도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업우대서비스에 가입하면 임직원 할인운임(구매시점 가장 낮은 요금)에 국내선은 최대 9000원, 국제선은 최대 2만500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편도 3만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제외) 미만과 국제선 왕복 12만원 미만 등 일부 특가운임은 제외된다.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주항공 측은 "출장이 잦은 기업은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여행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LG전자, 프리미엄 청소기 '코드제로' 돌풍

국내 청소기 매출 절반 차지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가 국내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코드제로'는 무선 진공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 '코드제로 핸디스틱', 침구청소기 '코드제로 침구킹', 로봇청소기 '로보킹'을 포함하는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브랜드다. '코드제로'는 LG전자가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유무선 청소기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절반 수준이다.

LG전자가 지난 1월 출시한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은 5월 말까지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달성했다. 특히 '코드제로 싸이킹'은 50만원 이상 LG 프리미엄 청소기를 구매하는 고객 3명 중 2명이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코드제로 싸이킹'은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 유선 청소기 수준의 강한 흡입력을 구현한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에 대한 무상 보증 기간은 10년이다.

LG전자가 지난해 9월 출시한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핸디스틱'은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판매량 1만대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코드제로 핸디스틱'은 핸디형과 스틱형 청소기를 결합한 '투인원(2in1)' 타입으로 개당 최대 35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2개 제공해 최대 7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장 사장은 "선을 없애 편리한 LG '코드제로'만의 차원이 다른 가치로 국내 최고의 무선 청소기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LG전자 홍보모델이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과 '코드제로 핸디스틱'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대유위니아, 소외층에 제습기 100대 기부

대유위니아(대표이사 박성관)가 계절마다 필요한 제품을 기부하며 소외계층에 온정을 배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맞춰 전국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양로원 등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에어워셔를 기부한데이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저소득·취약계층에 위니아 제습기를 기부했다.

대유위니아는 15일 오전9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대유위니아 박성관 대표,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니아 제습기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을 통해 공급된 16ℓ급 위니아 제습기 100대(5000만원 상당)는 서울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노인데이케어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취약계층 시설에 대유위니아서비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대유위니아가 이번에 기부한 위니아 제습기는 의류건조모드와 토출구가 회전하는 오토스윙이 적용돼 있다. 장마철 눅눅한 빨래를 자연 건조시 대비 최대 8.1배 빠르게 건조시켜주는 제품이다.

위니아 제습기는 소음이 37데시벨(dB)에 불과하며 토출 온도도 동종 업계 제품 최저 수준으로 실내 온도 상승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양성운기자



박성관 대유위니아 대표(오른쪽)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15일 임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위니아 제습기를 기부했다.



CHAPTER 1.

낭만여행

〈미드나잇 인 파리〉 [6/4 ~ 6/10]
〈비포 미드나잇〉
〈사랑을 카피하다〉

CHAPTER 2.

예술과 인생

〈마지막 4중주〉 [6/11 ~ 6/17]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CHAPTER 3.

사랑의 속성

〈아무르〉 [6/18 ~ 6/24]
〈우리도 사랑일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CHAPTER 4.

나를 찾아서

〈와일드〉 [6/25 ~ 7/1]
〈프란시스 하〉
〈꾸뻬씨의 행복여행〉

CHAPTER 5.

가족의 의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7/2 ~ 7/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자전거 탄 소년〉

CHAPTER 6.

영혼을 울리는 음악

〈비긴 어게인〉 [7/9 ~ 7/15]
〈인사이드 르윈〉
〈위플래쉬〉

주최 • 씨네큐브 ·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흥국생명보험(주)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www.icinecube.com www.facebook.com twitter.com/iCinecube
협력 • 그린나래미디어(주) | 더블앤조이 픽쳐스 | (주)뮤제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소프트 | (주)블루미지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영화사 진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찬란 | 판씨네마(주) | (주)팝엔터테인먼트 | CGV아트하우스

KT 영업익 늘었지만 기부금은 3분의 1 토막

211억원서 60억원으로 이통3사 중 가장 인색 LGU+는 61.9% 늘어

이통3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난 반면 기부금이 줄었다. KT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배 이상 '껑충' 뛰었지만 그에 비해 기부금은 3분의 1 토막 줄어 이통사 중 가장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 1분기 영업이익은 3208억6900만원으로 1년전 동일 기간보다 무려 135.3% 급증했지만 기부에는 가장 인색했다. KT가 이 기간 기부한 액수는 60억9400만원으로 2013년 동기 대비 71%(211억2600만원)나 줄어들었다.

KT측은 기부 방식 등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기부 예산은 1년을 정해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기부는 절반이하로 삭감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때 그때 집행하고 예산안도 없다면 주먹구구식 경영이라 더욱 문제다.

KT 관계자는 "임자도, 백령도 등 산간 오지 지역에 ICT 기술을 도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부방식이 바뀌면서 분기별 사용액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력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임직원이 했던 매칭기부금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KT란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기부 조차 생각하지 않고 경영전략을 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간오지에 기술 도입한 것은 기술우위라고 대대적 마케팅한 부분이라 홍보측면이 강한데 이런 것을 핑계로 기부액이 줄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

SK텔레콤은 1년전보다 매출이 59.9% 증가한 4026억원을 달성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3월 동안 83억8800만원을 기부했으나 올해 1분기는 58억3100만원으로 줄었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LG유플러스가 전년 동기 대비 기부금이 늘었다. 하지만 액수는 통신3사 중에서 미미한 편이다. 올해 1분기 기부금은 13억5700만원으로 1년전보다 61.9%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36.7% 늘어난 1547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 1분기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이 15.5%나 됐던 KT가 올해 동일 기간에는 1.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6%나 줄었다. SK텔레콤은 작년 2.3%에서 올해 2%로 다소 줄었고, LG유플러스 작년 0.4%에서 올해 0.9%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휴대전화 요금 부가세 포함해 표기하라"

시민단체, 이통3사 신고 방침

휴대전화 요금을 공시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여줘 통신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이통3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신일산업, 사회복지시설 '양지바른'에 후원

종합가전 기업 신일산업이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바른'에 제품 후원을 통한 사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회 봉사 활동은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일산업의 제품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후원은 시설에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 신일산업의 선풍기는 물론 공기청정기, 청소기, 밥솥 등 다양한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에는 신일산업의 임직원이 시설을 방문해 후원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시설 활동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제품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석 신일산업의 판매사업본부 전무는 "신일산업은 나눔을 통해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의 행보를 통해 사회 책임 경영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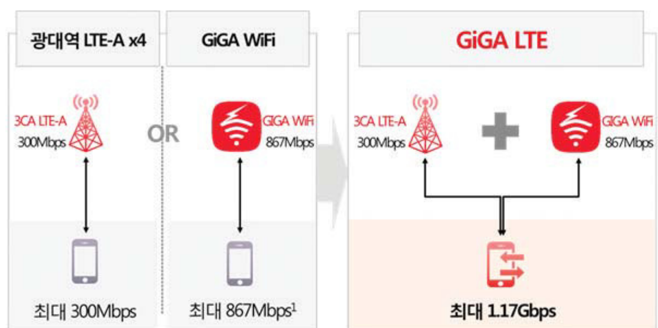
KT '기가 LTE' 상용화… 영화 1편 2분6초면 다운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성공 기존 LTE보다 15배 빨라

KT가 기가 LTE를 상용화해 유선 기가 인터넷에 이어 '무선 기가' 인프라 구축으로 기가 시대를 열었다.

KT(회장 황창규)는 3CA LTE와 기가 WiFi를 하나의 통신망처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빠르고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LTE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가 LTE는 5G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이종망 융합기술로 KT가 2013년 선보인 LTE-와이파이 융합 기술에서 진화된 개념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삼성전자와 공동개발을 진행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표준화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초적 수준의 이종망 묶음 기술(MPTCP)을 발전시켜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가급의 속도를 제공한다. UHD 영화 1편(약 18GB)을 약 126초만에, 초고음질 무손실(FLAC) 음원 100곡(약 3GB)도 약 21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KT는 6월 현재 20만개의 LTE 기지국과 14만개의 기가 WiFi를 비롯한 국내 최다 30만개의 WiFi로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넓은 기가 LTE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모바일 IPTV 외에도 SNS, 게임,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 모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돼 고객들이 기가 LTE의 빠른 속도를 폭넓게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막힘 없는 속도로 UHD 화질의 대용량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KT의 기가 LTE 서비스는 '데이터 선택 599·699·999 요금제' 이용고객 중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단말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KT는 해당 고객들이 기가의 속도를 맘껏 경험할 수 있도록 기가 LTE를 통해 사용한 데이터는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서 차감하지 않는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정문경기자

LGU+, LTE-와이파이 묶는 '기가 멀티패스' 제공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3밴드 LTE-A와 WiFi를 묶어 최대 1.17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멀티패스' 기술을 6월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될 기가 멀티패스 기술은 와이파이 대역 80MHz와 LG유플러스의 LTE 대역 40MHz를 묶는 다중 경로 '멀티-패스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MPTCP)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이론상 최대 1.17Gbps 속도를 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고 수준의 LTE 네트워크 환경 및 사용자 규모, 지역별 상황에 맞춘 망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6월 중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고객은 유플러스 HDTV, 유플렉스 무비 등과 같은 데이터 트래픽 요구가 많은 서비스 이용 시 LTE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사용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한쪽 망이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MPTCP 기술의 특징인 '망 전송률 독립 조절' 기능으로 다른 망은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기가 멀티패스 기술을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6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출시될 단말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히트상품 키워드 'H.E.R.O'

옥션, 상반기 트랜드 분석
영웅 마케팅·반전상품 등
온·오프라인 연계사업 이슈



/옥션 제공

옥션(대표 변광윤)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을 주도한 상품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H.E.R.O'(영웅)를 히트상품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션은 상반기 쇼핑의 주요 테마는 ▲영웅 마케팅 ▲환율 혜택 입은 수입품 ▲반전 상품 ▲ O2O(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로 꼽았다.

특히 영웅 마케팅이 돋보였다. 4월 상영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흥행으로 관련 의류·피규어·휴대폰 외장형 보조 배터리·USB·마우스 등이 호응을 얻었다. 한화 이글스는 프로야구 흥행을 책임지며 관련 상품 매출이 10개 구단 중 1위를 기록했다.

달러와 엔화 환율 하락세로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며 미국·유럽·일본 상품도 판매도 크게 늘었다. 글로벌시장에서 인정 받은 청소기·세탁기·전자레인지·압력밥솥 등이 많이 팔렸다. 특히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유럽산 디자인 가구와 조립식 가구 판매가 크게 늘었다.

샤오미는 휴대폰 외장형 배터리를 흥행시키며 중국 제품에 대한 고정 관념을 뒤엎었다. 샤오미 스마트 체중계는 5월에만 옥션에서 3500여대, 공기청정기 '미.에어'는 5월 론칭 당일 하루 동안 1250대가 판매됐다.

1인 가구 증가 현상로 옥션 단독 상품인 '이나프 2in1 핸디청소기'는 상반기에만 1만대 이상 팔렸다. '요리하는 남자'의 영향으로 남성의 홈베이킹가전제품·주방가접·식기류 등의 구매도 전년 동기 대비 30~130% 씩 늘었다.

온라인이 쇼핑 채널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오프라인 채널과의 협업도 증가했다. 옥션은 3월에 편의점 GS25와 제휴해 인기상품을 e쿠폰으로 최대 6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다. SPA(제조유통일괄) 의류·화장품·유아용품 등의 브랜드에서도 온라인몰에 공식 입점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SPC그룹도 이베이와 MOU를 맺고 온라인 공동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옥션 관계자는 "연초부터 먹방이라 불리는 음식 관련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과 주방용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완구 등 키덜트 상품은 구매층이 확대됐고 환율 강세를 업고 수입상품이 인기를 끄는 등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현대百, 울산 명물 '12경 전병' 초대전 현대백화점은 18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울산명과 초대전'을 연다. 울산명과는 울산 소재의 동네 빵집 셰프 10인이 울산제과협동조합을 만들어 론칭한 베이커리 브랜드다. /현대백화점 제공

메르스 확대… 유통업계 속수무책

백화점 · 대형마트, 전년비 평균 5% 매출 감소

"금요일까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감소세를 보였는데...4차 감염자까지 나오니깐 대책이 없네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장기간 되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지난 13~14일 매출은 지난해 동기(6월 두번째 주말) 대비 5.1% 하락했다. 지난 8~14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으며 전주 대비 0.2% 줄었다.

현대백화점의 주말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5.1% 하락했다. 특히 지난 1~7일 매출은 전년비 0.9% 하락에 그쳤지만 8~14일 들어서는 5.3%까지 줄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주말과 주중 매출은 전년비 각각 4% 떨어졌지만 전주에는 5% 역신장했다.

대형마트 역시 메르스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주말 성수기인 지난 13일 매출이 전년비 3.1% 감소했다. 지난 8~13일까지 매출 은 전년에 비해 4% 떨어졌다.

롯데마트도 지난 13일 매출이 전년비 5.7% 줄었다. 지난 8~13일까지 매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5.7% 역신장했다.

다행히 대형마트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마트 매출과 주문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각각 48.1%, 37.5% 증가했다. 특히 생수, 쌀, 수박을 포함한 생필품·식품 등 전형적 장보기 품목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급증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온라인의 주문 건수도 각각 61.8%, 51.9%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메르스 확진 환자 감소세를 보여 매출 회복을 기대했는데 4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주말 역시 역신장을 기록했다"며 "온라인 매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임을 고려하면 매출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홈쇼핑, 상반기 '패션·뷰티 브랜드' 강세

2015년 히트상품 10선 발표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상품 1~10위를 집계해 '상반기 히트상품 10선'을 15일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이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주문수량을 기준으로 판매 상위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0%가 패션·뷰티 제품이었다. 특히 '아키이브56'·'조르쥬레쉬' 등의 롯데홈쇼핑 독점 상품들의 판매량이 높았다.

판매 1위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아가타 파운데이션'이 차지했다. 총 8회 매진됐으며 120억원 매출과 16만 8300개의 판매를 기록했다. 2위는 '아이오페 에어쿠션'으로 16만 2300개가 판매됐다. 12만개를 판매한 '제니하우스 퍼펙트스킨 프로 커버 파운데이션'은 4위를 차지했다. 면세점 동일 브랜드인 '시크릿에이지의 주름크림, 퍼펙트 피니쉬크림'은 6위를 기록했다.



팬션 제품 중에서는 '꾸즈 의류'와 '더 리아뉴욕 의류'가 각각 3위와 9위를 차지했다. '메쎄 여성화'는 5위, '아키이브 56 의류'와 '조르쥬레쉬 여성의류'는 각각 7위와 8위에 랭크됐다. 10위는 국내 유명 요리사 '에드워 권'의 가공식품으로 식품군으로써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김성현기자 minus@

"롯데·호텔신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재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사진**)이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입찰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백적 사업자이므로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면세점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재벌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이상인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의 경우 2014년 기준 면세점 매출 4조 2171억원으로 시장점유율 50.76%를 차지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매출 2조 5346억원으로 시장점유율 30.54%다. 두 기업의 면세점 점유율 합계는 81.30%에 달한다. 면세점 사업은



2007년 2조 6442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8조 3077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면세점 사업은 80%이상을 롯데와 호텔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

과즙첨가 'RTD 주류' 수요 급증

올해 들어 과즙을 첨가하거나 탄산을 섞어 만든 소주·맥주 등 'RTD(Ready to drink) 주류'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15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분석한 마트 내 주류 매출에 따르면 과즙 첨가 소주인 '순하리' 출시 이후 1~5월 소주 매출은 5년 만에 2.8% 신장했다.

6월에 들어서도 소주·RTD맥주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7.0% 증가했다.

롯데마트 측은 'RTD 주류'의 인기 요인으로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돼 고객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음주가 늘며 달달한 맛이 첨가된 낮은 도수의 'RTD 주류'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 롯데마트는 17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매장에서 '수입맥주 RTD' 상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머드쉐이크'·'VK모히토'·'사바나 드라이'를 265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관련 상품을 4개 구매한 고객에 한해 9600원에 판매하는 '다다익선' 행사도 진행한다. /김성현기자 minus@

식품업계, M&A '큰 손' 부상

인수합병 움직임 활발
조선·유통업까지 확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식품업계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주력 사업인 식품을 벗어나 굵직한 조선·유통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해운업계 3위 팬오션 인수를 사실상 확정지은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16일 인수단을 꾸려 경영권 인수 준비 작업을 개시한다. 이사회 구성과 법정관리 졸업에 대한 법원 허가를 거쳐 다음달 이전에 인수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하림은 이달 9일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납입을 마쳤다.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반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하림은 팬오션 인수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됐다. 육가공업체를 넘어 글로벌 곡물유통기업으로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과업체 오리온(회장 담철곤)은 투자자문사로 일본 노무라금융을 선정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홈플러스 예비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룹 내 중복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자금여력을 확충한 후 M&A(인수합병)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와의 공동 인수 방식이나 최종 입찰 참여 여부 등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립식품·내츄럴삼양도 올 2월 냉동만두 제조업체인 세아침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매각 주관사에 각각 제출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7월 아이스크림 업체 빨라쪼 델 프레도를 약 50억원에 인수했다.

식품업체들이 시너지를 내세우며 M&A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도 나온다.

해운업의 장기불황으로 하림의 팬오션 인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찮다. 하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하림의 팬오션 인수에 반대해온 소액주주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오리온이 인수를 검토 중인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췄지만 불황과 규제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약 8조9300억원의 매출과 3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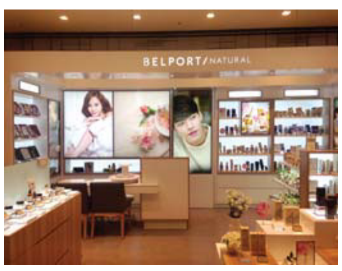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업계가 M&A를 통해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인수한 기업들이 노하우가 부족해 M&A를 추진하다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동대문 쪽방총 350세대에 긴급물품 지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이 서울 동대문 쪽방촌 거주민 350세대에 생수 1만개와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긴급지원했다.15일 오전 세븐일레븐 본사 직원들은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물품을 전달하고 방청소 봉사도 진행했다.
/세븐일레븐 제공

"한국의 세포라 꿈꾼다"… 편집숍 경쟁

점포 수 확대 본격화
중소 화장품도 好好



최근 한 브랜드만 판매하는 로드숍 인기가 주춤한 가운데 뷰티 편집숍이 여러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신(新) 화장품 유통 채널로 급부상했다. 한국형 세포라를 표방, 기존 자사 브랜드 유통 중심의 로드숍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세포라는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에 소속돼 있는 글로벌 화장품 유통 기업으로 디올·입생로랑·에스티로더 등이 입점돼 있다.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를 모아 판매하면서 가격대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론칭한 수입 화장품 멀티 브랜드숍 '벨포트'는 올해 가맹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재 상권 분석 중이며 조만간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1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가맹사업을 통해 연내 100개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가맹점과 직영점 비율은 7 대 3 수준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상권에 따라 매장 규모나 브랜드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소화할 수 없는 상권의 경우 단독 브랜드만 운영하거나 특정 콘셉트에 맞는 브랜드 제품만 구성해 판매하는 식이다. 현재도 멀티숍 벨포트 외에 고가 브랜드 중심의 '럭스', 자연주의 제품을 모아 놓은 '내추럴', 단독숍 보테가베르데 등으로 다양하게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직매입 편집매장 형태로 '라코스메띠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몰 동부산점 1층에 760m² 규모로 전개 중인 이 매장은 월평균 1억5000만~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설화수·헤라·베네피트·록시땅·숨37 등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 2~3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며 아울렛·쇼핑몰 입점을 비롯해 로드 상권 진출도 검토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빙그레, 라인프렌즈와 제휴

빙그레(대표 박영준)는 라인프렌즈(Line Friends)와 제휴해 가공유 제품을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빙그레는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브라운의 달콤한 초코타임', '코니의 상큼한 딸기타임', '샐리의 달달한 커피타임' 3종을 선보였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가공유 시장에서 빙그레의 시장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릭터를 활용한 스페셜 시즈널 에디션을 출시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현실성 없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
자체 자산으로 인수 불가능



오리온(회장 담철곤)의 홈플러스 인수 검토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IBK투자증권은 오리온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찬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매각대금과 비교해 오리온의 현금자산 규모가 매우 작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리온이 제과 사업에 집중해온 점에 근거하면 홈플러스 인수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2014년 기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약 8277억원에 유통업계 평균 에비타멀티플(EV/EBITDA·기업가치/EBITDA)인 8배를 적용해 약 6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일 뿐 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가진 100여개 이상의 점포 부동산과 국내 3대 대형마트라는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가치는 최대 10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올해 1분기 기준 오리온의 자본 총계는 약 3조원이며 이중 유동자산은 1조원이다. 그나마도 당장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2900억원 정도이다. 사실상 오리온 자체 자산으로는 홈플러스 인수가 불가능하다.

박 연구원은 "홈플러스 인수시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인철 부회장이 이마트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과 신세계그룹이 지난 2006년 진행한 월마트코리아 인수작업을 주도했던 경력으로 인해 주목 받았을 뿐 현실성이 낮아 오리온 주가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오리온의 주식은 최근 5거래일(6월9일~6월15일)동안 거래량은 최대를 갱신했지만 15일 주가는 전 거래일(12일대비) 4.37%하락한 109만 5000원에 장을 마쳤다.

오리온은 지난 12일 "홈플러스 모기업 영국 테스코의 매각 주간사 HSBC가 보낸 투자안내서를 받았다"며 인수 검토 계획을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

스마트하우스 '하라반' 인기

자투리 땅서 2시간에 뚝딱 일반주택보다 비용 절반


이동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

자투리 땅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이 화제다.

하라반은 간소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손색 없는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40~5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집처럼 싱크대, 배수구, 전기, 샤워 시설도 설치 가능해 주말농장이나 논, 밭 근처 계곡, 임야 등 어디나 활용 가능하다.

또한 조립식 주택으로 설치에 약 2~3시간 소요되고 해체 또한 1시간이면 가능해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임시 사무실로도 활용 가능한 만능 스마트하우스이다.

그리고 하라반의 자재는 3층 구조판넬, 알루미늄 빔, CR강판, 주춧돌을 사용해 여느 가정 주택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며 반 영구적으로 안전한 이동식 주택이다.

펜션, 캠핑장 등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다. 공간만 있으면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하라반 스마트하우스는 소형(3~4인용), 중형(5~6인용), 대형(7~8인용) 세가지 사이즈로 선택·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43-1177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미약품, 인공눈물 '루핑점안액' 리뉴얼

블루·화이트 패키지 선봬



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국내 최초 히알루론산나트륨 함유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인'루핑점안액'(사진)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 출시했다. 최근 냉방, 미세먼지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처음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했다. 리뉴얼된 패키지는 블루와 화이트 톤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품 특징과 설명이 잘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루핑점안액은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로 인간의 눈물과 가장 유사한 성분인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다. 때문에 사용감이 편안하고, 인체내의 시멘트라고 불리면서 자기 무게보다 1000배 이상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첨가제로 함유해 적은 양으로도 습기 보충 효과를 볼수 있다.

렌즈와 추가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소프트렌즈의 변색 현상도 없다. 하드렌즈, 소프트렌즈 등 모든 렌즈에 사용 가능해 눈의 이물감과 건조함을 느끼기 쉬운 렌즈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부제 무첨가 제품임에도 식약처로부터 충분한 제품사용기한(36개월)을 승인 받았다. 폭넓은 보관온도(1~30℃)로 더운 여름철에도 보관에 용이하다.

현대약품 약국마케팅팀 이혜림 약사는 "여름철의 경우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건조한 바람이 눈의 수분을 증발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루핑점안액은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 렌즈 착용시 느끼는 불쾌함 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강강술래 "면역력 강화 곰탕 드세요"

매장, 곰탕·갈비탕 1+1 증정 쇼핑몰, 사골곰탕 6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보양식 파격할인 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전 매장에서는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한 사골곰탕 소용량(350㎖·2팩·4400원)과 중용량(500㎖·2팩·5000원), 대용량(800㎖·2팩·7900원)을 한 팩 사면 한 팩을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인삼과 홍삼을 넣은 늘봄갈비탕(500㎖·2팩)은 5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60% 할인된 2만5200원, 늘봄갈비탕 박스(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하며 무료로 배송해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맛집·숙소 등을 소개하는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과 자신의 체형과 운동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요일별 맞춤 운동법을 소개하는 길벗출판의 추천도서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롯데리아 '헬로키티 피규어' 한정판

韓·美·中·英 국기 의상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1일부터 판매를 실시한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 한정판'이 금주 전량 소진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리아 헬로키티 글로벌 피규어 한정판은 미국·한국·중국·영국 4개국의 국기를 헬로키티 캐릭터 의상으로 입혀 특별함을 더했다. 피규어 전체를 금색으로 표현한 헬로키티 골드 한정 피규어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총 20만개 제작 수량 중 8000개의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헬로키티 골드 피규어가 포함된 팩 제품은 70%가 판매됐다.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4종 제품은 출시 15일만에 11만개가 판매되며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번 헬로키티 피규어 한정판은 15일간 전국 매장 판매 운영 결과 일평균 1만개씩 판매되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다양한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성인 여드름' 수분크림으로 다스리자

여름철 '꿀피부' 꿀팁!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늘어나는 땀과 피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더더욱 여름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여드름 환자 수는 18%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25세 이상 여성 성인 여드름 환자가 무려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다. 여성에게 특히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성에 비해 심한 호르몬 변화와 잦은 화장품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조금만 피부 청결에 소홀해도 뾰루지가 생기거나 기존의 여드름이 악화되기 쉬운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인 여드름은 염증이 심한 편이라 흉터나 착색이 남기도 쉬운 만큼 평소 생활 속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에 생긴 여드름이 25세 이후까지 계속되거나 20대 후반에 나타나는 여드름으로 일반 여드름처럼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여드름 세균, 피지 분비의 증가,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 여러 원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도 성인 여드름을 유발,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여성에게 성인 여드름이 더 심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전후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켜 성인 여드름이 유발, 악화되기 쉽다. 이와 함께 과도한 화장품 사용도 영향을 미치는데 화장 후 제대로 클렌징을 하지 않아 화장품 찌꺼기가 많이 남을수록 여드름은 심해진다.

무엇보다 성인 여드름은 이마, 코 주변에 생기는 청소년기 여드름과 달리 주로 턱 선이나 입 주위에 잘 생기고, 염증이 심한 특징이 있다. 염증이 심하다 보니 여드름이 없어진 후에도 착색이나 흉터가 남기 쉽다. 따라서 무작정 짜거나 긁는 등의 행동은 여드름 흉터를 남기는 지름길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따라서 성인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 하루 2~3번 정도 반드시



화장 지울땐 꼼꼼한 세안 방치땐 착색 등 흉터 남겨

세안을 해야 하고, 화장을 했을 때는 꼼꼼한 세안을 통해 화장품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은 화장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인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이 심할 때는 가급적 화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김방순 원장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여드름도 유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며 "손으로 짜거나 만지는 등 무분별한 자가 치료는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흉터나 착색을 남기는 지름길인 만큼 적극적인 피부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도움말 :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김방순 원장

/복현명기자 hmbok@

star bag

김수현·임수정과 한 식구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새 소속사로 김수현, 임수정 등이 속해 있는 키이스트를 선택했다.

키이스트 엔터사업총괄 양근환 사장은 15일 "손담비는 가수, MC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배우로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속계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새 파일럿 예능 MC 도전

개그맨 **정형돈**과 스포츠해설가 **안정환**이 KBS2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네멋대로 해라'의 MC를 맡는다.

스타들이 스타일리스트 없이 옷을 입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홍진경·광희·은지원·김성일 등이 패널로 출연하며 오는 27일 첫 방송된다.

새해 소망 이룬 득남



배우 **박건형**이 지난 14일 득남했다고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15일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건형은 14일 오후 서울 모처의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얻었다. 박건형은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새해 소망으로 "아빠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0년대 팝 분위기의 신보



팝 아티스트 **미카**(MIKA)의 새 앨범 '노 플레이스 인 헤븐(No Place in Heaven)'이 15일 발매됐다.

이번 앨범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프로듀서 그렉 웰스(Greg Wells)와 함께 작업한 2년 만의 신보다. 70년대 팝 음악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의 곡들을 담았다.

'식샤를 합시다2(이하 식샤)'는 '시즌 1'을 뛰어 넘는 인기로 2회 연장을 한 성공 드라마다. 먹방 소재와 로맨틱 코미디를 절묘하게 섞은 복합 장르 드라마가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시즌제로서 전작보다 나은 속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그 중심에 배우 권율(35)이 있었다.

"긴 무명생활… 연기 내공 쌓일거라 믿어"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권율**

권율은 데뷔 8년차다. 스크린과 안방에서 꾸준히 연기를 해왔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최민식 분)의 아들인 이회 역을 맡은 이후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긴 무명 세월에 대해 전혀 불안해 하지 않았다.

"주변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했지만 전 그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좋은 경험이 돼 연기 내공으로 쌓일거라 믿었어요."

실제로 권율은 '식샤'가 생애 첫 로맨틱 코미디 주연작임에도 '로코킹'이라는 수식어가 생길 만큼 이상우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데뷔 8년차… 연극·영화 등 꾸준히 연기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 보여주는게 목표
가식적인 여자보다 솔직한 여자 좋아요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진 않았지만 늘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연기가 수월했던 것만은 아니죠. 대본을 파면 팔수록 캐릭터에 공감이 되고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식샤'의 이상우가 그랬어요. 대본을 3부까지 봤을 때는 이상우 역시 기존의 캐릭터를 답습하는 것 같았지만, 4회부터는 욕을 하는 등 반전을 주는 모습에 끌렸죠. 그런 독특한 성향의 캐릭터를 좋아하다보니 지금까지 다채로운 군상을 연기한 것 같아요."

드라마로 데뷔했지만 연극으로 기초를 다지고 독립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해왔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우면서도 배우로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배우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청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율이 저런 작품에도 나왔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크리스토퍼 왈츠입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거기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2012년 윤계상과 함께 '원테이블'이라는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을 했다. 하지만 그는 "'원테이블'은 친한 윤계상씨와 함께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참여했던 것"이라며 "예능은 자신이 없다. 아직은 배우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식샤'에서 이상우는 눈치 없고 서투른 백수지(서현진 분)와 적극적이지만 가식적인 홍민아(허가윤 분) 사이에서 결국 백수지를 택했다. 권율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민아처럼 적극적이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인물보다는 눈치 없는 수지가 낫다. 그래서 이상우가 나랑 많이 닮았다고 느낀다"며 "거짓말 하는 여자가 싫다. 나는 사랑할 때 진심을 다하는 편"이라고 연애관을 공개했다.

3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권율은 오연서와 함께 올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좋아해요. 한국판 '웜바디스' 같은 작품이 있다면 꼭 출연해보고 싶어요. 7월 한여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풍성하게 차려지니 많이 보러 오세요."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제훈)



국악과 무용의 환상 콜라보

'흐르는 강물' 19~20일 국립극장 무대

무용과 국악의 환상 조합을 이룬 무용음악극 '흐르는 강물'이 6월 19~20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흐르는 강물'은 전통 악기의 독특한 연주기법을 바탕으로, 연주하는 모습 그 자체가 춤이 되고, 춤의 움직임이 음악의 일부인 듯 어우러지는 안무로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적 작품이다. 국악과 무용 각각의 장르로는 대중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이에 스토리를 더해 관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이 작품의 안무와 연출을 맡은 이현주(**사진**) 안무가는 "국립무용단의 오랜 무대경험을 통해 전통을 기본으로 삼고있지만,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움직임의 변용으로 전통의 틀은 지키되 새로운 창작 작품으로 다가가고자 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연주자인 문형희 음악감독과의 결합도 기대된다.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안다는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동안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나누고 합을 맞춰온 중견 예술가이자 부부다.

연주는 대금·피리·거문고·25현 가야금·해금·장구·타악 등이 주를 이루고, 이현주 안무가와 7인의 무용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강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재현해 낸다. 문의: 02) 2280-4114 /김민준기자 mjkim@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1위	〈신데렐라〉 19.8%(75명)
2위	〈팬텀〉 17.7%(67명)
3위	〈베어〉 13%(49명)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악녀로 돌아오는 씨스타 그룹 씨스타가 악녀로 변신해 컴백한다. 씨스타는 2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랑스러운 악녀를 콘셉트로 이미지를 공개했다. 흑백 화보 속에서 씨스타 멤버들은 마이크로 미니룩으로 섹시한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끈다. 씨스타는 오는 22일 새 미니앨범 '셰이크 잇(Shake It)'으로 컴백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김무열·이시영 감성액션 도전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서 호흡 맞춰
평범한 회사원이 사라진 신부 찾아나서는 이야기

배우 김무열과 이시영이 감성액션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김무열은 올해 3월 배우 윤승아와 결혼 후 OCN 16부작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연출 김철규·극본 유성열)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평범한 회사원인 김도형(김무열 분)이 사라진 신부 윤주영(고성희 분)을 찾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린 감성액션 드라마다. 이시영은 김도형을 돕는 형사 차윤미 역을 맡았다.

15일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무열은 "기존의 액션이 화려함만을 추구했다면 이 작품은 감성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바닷가에서 신부를 되찾을 뻔 하다가 놓치는 장면이 있다. 반나절 넘게 액션을 했지만 체력적인 것보다 신부를 눈앞에서 놓친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시영은 "형사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감정의 선이 들어가는 액션이 마음에 들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액션 느와르 '나쁜 녀석들' '실종느와르 M' '뱀파이어 검사' '특수사건전담반 TEN' 등을 만들어 온 OCN의 야심작으로 20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배우 김무열과 이시영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N '아름다운 나의 신부'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아버지의 죽음 파헤치기 위한 잠입수사

◆ tvN '신분을 숨겨라' 오후 11시



경찰청 본청 내 극비 특수 수사팀 '수사 5과'의 범죄 소탕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차건우(김범 분)는 친형처럼 따르던 민태인(김태훈 분)이 잠입수사 중 위장이 깨진 사실을 알고 그를 구하기 위해 '수사 5과'에 합류한다. 장무원(박성웅 분)은 스페셜팀 '수사 5과'를 창설한 주역이자 팀의 리더로 초인적인 통찰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팀을 총괄 지휘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15분

김정난과 김지훈, 선우선은 성공적인 사랑을 위한 몸 건강 체크에 나선다. 김정난은 의외로 성호르몬이 왕성하다는 진단을 받고 놀라워하다가 자신의 성욕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수맥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곳곳에도 흐른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몸속 수맥의 놀라운 비밀이 대공개된다.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몸속 수맥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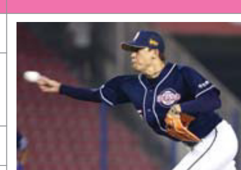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향기만으로도 향수를 자극하는 친숙한 국민음식 카레를 만든다. 백종원은 카레가 카레가루와 채소만 있으면 되는 음식이라는 편견을 깨고 카레 맛을 좌우하는 기술을 전수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52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6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2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긴급좌담 메르스 어떻게 끝낼 것인가	00 후아유 – 학교 2015 (16회)	00 화정 (20회)	00 상류사회 (4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졸업>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못>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50회) (재)	30 삼시세끼 정선편 (5회) (재)	40 한식대첩 3 우승자 레시피 (4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삼성(SPOTV+) SK vs 한화(MBC SPORTS+) NC vs KT(SKY SPORTS) 롯데 vs 넥센(SBS SPORTS) KIA vs LG(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8회) 30 두 남자의 캠핑쿡 (3회)	00 쇼킹 70억 (18회)	30 건축학개론	
20시	45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20 집밥 백선생 (4회) (재)	00 오늘 뭐 먹지? (39·71회)	00 아시아 대평원– 2부 지상최대의 초원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1회)	40 집밥 백선생 (5회)	00 올리브쇼 2015 (21회)	00 180일간의 우주생활, 리빙 인 스페이스		
22시			00 오늘 뭐 먹지? (32·35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6회)	00 온 더 로드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8회)	00 신분을 숨겨라	00 올리브쇼 2015 (21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장거리 로켓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1회)	00 Let 미인 5 (1회) (재)	00 메이의 파티쿠킹 (4회) 20 2015 테이스티로드 (201회)	00 <극한직업> 산악 제설반	50 론 레인저	

‘메이저 3연패’ 박인비, 세계랭킹 1위 탈환

KPMG 위민스 김세영 꺾고 정상… 상금랭킹도 1위

‘골프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를 3년 연속 제패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파73·6670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대회 최소타 타이인 합계 19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박인비는 동반플레이를 한 김세영(22·미래에셋)을 5타차로 따돌리고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박인비는 역대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3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다.

박인비에 앞서 패티 버그(미국)가 1937~1939년 당시 메이저 대회였던 타이틀홀더스 챔피언십에서 연속 우승했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2003년~2005년까지 LPGA 챔피언십을 3연패했다. 박인비의 기록은 소렌스탐 이후 10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박인비는 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도 리디아 고(18)를 2위로 밀어내고 17주 동안 내줬던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메이저 6승은 박세리(5승)를 넘어선 한국 선수 중 최다 우승이다.

상금 규모도 여자 선수 중 최고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 52만5000달러(약 5억9000만원)를 받았다. 또 이번 시즌 가장 먼저 3승을 올려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하며 상금 랭킹 1위로 올라 섰다.

박인비는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세영은 이날 8번홀까지 박인비를 1타차로 압박했지만 9번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무너졌다.

김세영에 이어 렉시 톰프슨(미국)이 3위(12언더파), 브리트니 린시컴(미국)이 4위(11언더파)를 차지했다. 김효주(20·롯데)는 14번 홀에서 미국 진출 이후 첫 홀인원을 기록한데 힘입어 공동 9위(8언더파)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박인비가 15일 열린 LPGA 투어 시즌 두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뒤 코치이자 남편인 남기협씨와 포옹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전 다득점 승리 노려라

FIFA 여자월드컵

윤덕여호 16강 ‘경우의 수’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사상 첫 월드컵 16강의 운명이 결국 ‘경우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팀은 18일 오전 8시(한국시간·KBS 중계) 캐나다 오타와에서 FIFA 2015 여자 축구 월드컵 조별 예선 E조 3차전을 스페인과 치른다. 지난 브라질전 패배와 코스타리카전의 예상치 못한 무승부로 승점 1점인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16강의 희망이 보인다.



윤덕여 감독.

최상의 시나리오는 브라질이 코스타리카를 이긴 뒤 한국 역시 스페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승점 4점, 조 2위로 자력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브라질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브라질이 코스타리카와 비기고 한국이 스페인에 승리할 경우 여전히 자력 16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브라질이 패배할 경우 한국은 무조건 2골 이상으로 스페인을 이겨야 한다. 조 3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4팀에게 16강 진출의 자격이 주어지는 ‘와일드 카드’를 노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속한 E조와 D조를 제외하고 모든 조의 3위가 승점 3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이 스페인과 비길 경우 승점은 2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브라질에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은 힘들다. 코스타리카가 패배해 브라질을 제외한 세 팀이 승점이 같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이 불리하다. 골 득실에서도 뒤지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골득실에서 -1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코스타리카는 0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3점 이상으로 져 -3이 돼 한국이 조 3위가 된다고 해도 승점 2점으로는 조 3위 와일드 카드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희철기자

강정호 첫 4번타자 출격 볼넷만

추신수도 무안타 침묵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무안타로 주춤했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율은 0.243(222타수 54안타)으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1회 좌익수 뜬 공으로 물러난 데 이어 2회 2사 1,2루에서 아쉽게 우익수 직선타로 잡혔다. 5회와 7회에는 연타석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3-3이던 9회 결승점을 내줘 3-4로 패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출전했지만 볼넷 1개를 고르는데 그쳤다.

강정호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볼넷 1개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73(139타수 38안타)으로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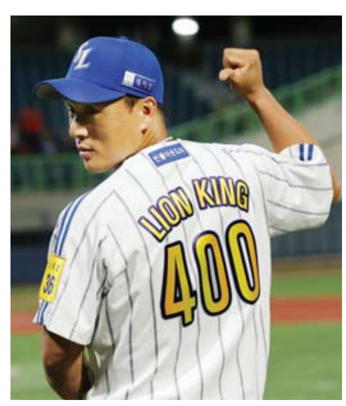
피츠버그는 0-0이던 연장 11회 2사 2,3루에서 터진 조시 해리슨의 끝내기 중전 안타에 힘입어 1-0으로 이기고 4연승을 달렸다.

/하희철기자

이승엽, 올스타 팬투표 1차집계 선두

‘국민 타자’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사진)이 2015프로야구 올스타전 팬 인기투표 1차 집계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다음 달 18일 경기도 수원 KT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팬 투표 중간집계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팬 투표 1차 중간집계는 14일 정오 기준으로 유효 투표수 84만3658표를 기록했다. 드림 올스타(삼성·SK·두산·롯데·KT) 지명타자 부문의 이승엽은 56만8517표를 얻어 드림 올스타 2루수 부문 후보인 팀 동료 야마이코 나바로를 7만3607표 차로 제쳤다.

나눔올스타(넥센·NC·LG·KIA·한화)의 최다 득표자는 외야수 부문의 이용규(한화)로 44만5524표를 얻어 선발투수 부문 선두 양현종(KIA)을 단 971표 차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mjkim@

올림픽 축구대표팀, 튀니지 2-0 완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U-22)이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유럽 원정을 마쳤다.

올림픽 대표팀은 14일(현지시간) 튀니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문창진(포항 스틸러스)의 활약에 힘입어 2-0으로 꺾었다.



전반 37분 문창진(사진)은 아크서클 왼쪽에서 박인혁(경희대)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로 슈팅해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 프랑스전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이다. 후반 1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문창진의 크로스가 튀니지 선수의 머리에 맞은 뒤 골문으로 들어가는 자책골로 2-0으로 점수차를 늘렸다. 후반 10분 튀니지에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골키퍼 김동준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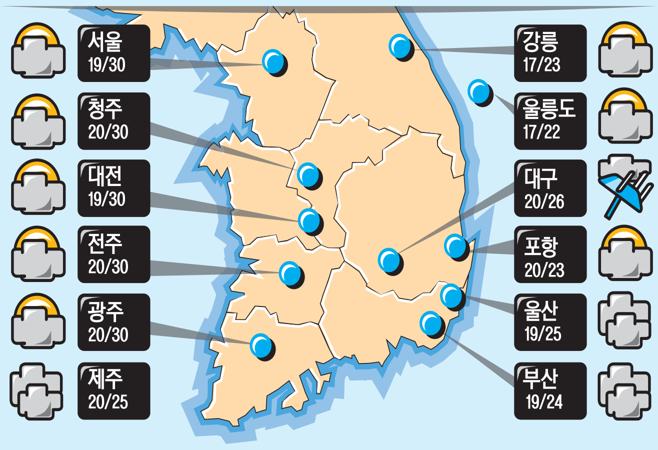
대표팀은 현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2016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있다.

/하희철기자

날씨

6/16 화 일출시각 05:10 일몰시각 19: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3			2		9			8
1				3				5
			1		6			
	3						2	
		2	4		3	8		
6		7				2		4
			7		5			
4		3				5		7

1	2							
		7	1			2		
	9	5				8	7	
				6		3		
2	7		4		5			9
				7		4		
	4	1				7	8	
		6	2			9		
3	5							

스도쿠 정답

7	8	6	5	1	4	3	9	2
3	4	5	2	7	9	1	6	8
1	2	9	6	3	8	7	4	5
8	7	4	1	2	6	9	5	3
5	3	1	9	8	7	4	2	6
9	6	2	4	5	3	8	7	1
6	5	7	3	9	1	2	8	4
2	1	8	7	4	5	6	3	9
4	9	3	8	6	2	5	1	7

1	2	8	7	4	9	5	6	3
6	3	7	1	5	8	2	9	4
4	9	5	6	2	3	8	7	1
8	1	4	9	6	2	3	5	7
2	7	3	4	8	5	6	1	9
5	6	9	3	7	1	4	2	8
9	4	1	5	3	6	7	8	2
7	8	6	2	1	4	9	3	5
3	5	2	8	9	7	1	4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Is Min Byung Ho Park's Regime's Hu Moon Do?

<민병호는 박근혜정부의 허문도인가>

Min Byung Ho, New Media Secretary of Cheongwadae is believed to be the 5 Republic, Cheongwadae secretary's return.

Naver and Daum portals have requested the press 'an open news evaluation committee'.

The two portal's suggestion was mainly effected by the secretary Min. Min was determined to change the internet media problem his retirement.

Former secretary Hu stated in the 80 that he once though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ir income due to the press' confusion are like parasites socially.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두고 5공화국 허문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재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은 지난달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형 뉴스평가위'를 구성해 달라고 언론에 제안했다.

두 포털의 제안에는 민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비서관은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허 전 비서관은 80년 5공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난립으로 사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경영주가 있고, 그런 언론사나 종사원은 사회적으로 기생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명회'에서 임선영 다음카카오 이사(왼쪽)와 유봉석 네이버 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언론계 중심으로 구성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매체의 자격을 평가하면 양사가 이를 바탕으로 뉴스 제휴를 맺거나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뉴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성 만나도 결실 없어…언제쯤 결혼 할까요
2017년 개띠생과 연분… 취미로 현악기 추천

월덕귀인 남자 75년 12월 28일 양력 20시경

Q 안녕하세요. 올해 41세 남자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인들이 소개를 해줘서 몇 분을 만나 보았지만 여러 가지가 연분이 안 되었는지 결과가 없습니다.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지 염려 됩니다. 32평 아파트도 있고 직장은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 영업부에 다닙니다. 사주를 보면 재성에 좋은 귀인의 도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로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물 운과 이성 운은 어떤지요? 언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지요 아니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취미 여행이나 하면서 지낼까요? 생일은 양력 저녁 8시 입니다.

A 늘 올바른 사고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공연한 고집이 있기도 하여 배척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여자만남에서도 적용시킨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만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터이니 자기 말 보다는 상대의 말에 경청을 하고 즐거운 대화를 편안하게 하도록 레크레이션 책을 보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처 궁에 현침(懸針:날카로운 기물)이 있어서 배우자를 극(剋)하는 기질을 암시하기에 인연이 어려운 것이니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침이 존재하는 사주는 취미로 현악기 하나를 배우면 부족한 이성의 기운을 끌어당기기도 하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생일주(生日柱:생일)에 재성에 좋은 귀인인 복성귀인(福星貴人)으로 복록이 따르기도 하지만 남의 일에 베풀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남보다 앞질러 생각하여 오해를 받기도합니다. 배우자는 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기에 사주 상으로는 2018년 지나 늦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명랑한 사람을 좋아하니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만 할 뿐 연분이 닿지 않고 있으며 결혼은 상대의 운에서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2017년이 되면 개띠생과 연분이 되니 만나면 다시 상담 하십시오. 복록이 있어 재물 운은 있지만 다만 재물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일에서 열심히 했을 때 그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이니 건강 잘 챙기시고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언급 했듯이 좋은 물을 먹어야 혈관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 영양식이나 건강식 보양을 먹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5년은 원진살(怨嗔殺)이 있어 인간관계에 섭섭함이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편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6일 (음 5월 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마세요. **72년생**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토끼 **51년생**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63년생** 여행수는 길합니다. **75년생**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세요. **87년생** 내가 가진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용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말고 기다려 보세요.

뱀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일이 생겨 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 **54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양 **55년생** 지혜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곧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 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를 가지세요.

원숭이 **56년생**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8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0년생**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9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닭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개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돼지 **59년생** 생소한 일은 되도록 삼가하세요. **71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83년생**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 주변사람에 의해 해소됩니다. **9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운이 있습니다.

사투 벌이는 메르스 의료진 인력지원 시급하다



김하성의 세상보기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메르스 발생 26일째인 15일 오전 현재 감염 확진자가 5명 증가한 150명, 사망자도 2명 늘어 16명으로 치명률 10.7%를 기록했다. 밤사이 격리자도 5216명으로 급증했고 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4차 감염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메르스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자체 역학조사 등을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24일까지 부분 폐쇄 조치를 단행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르스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된데다 극심한 가뭄마저 전국을 강타해 우리 경제가 휘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대응 실패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도 점차 심화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홍콩사스 사태처럼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한국의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8월말까지 사태가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이 2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수출부진에 메르스 악재까지 터지자 선제적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패키지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을 논하기보다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루라도 빨리 메르스 확산을 차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고한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구해야 한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최일선에서 의료진들이 메르스와의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다.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는 물론 교대 인력지원 등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뉴미디어 국장

'메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과로 끝낸 서울시



기자 수첩

이 홍 원 <사회부 기자>

최근 서울시는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라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를 잇달아 쳤다. 지난 8일 서울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해 여론의 강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메르스(MERS) 대응관련 자가격리통지서 발부계획' 문서에는 35번 확진자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당시 진행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와 보안요원 150명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문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메르스 감염 의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는 재건축총회 참가자 관련한 자가 격리자 명단이었다. 특히 명단에는 대상자들의 이름과 성별은 물론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상세히 기록됐다. 또 서울시는 이 문서를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삭제하는 등 '늑장대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2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정작 서울 시민들의 개개인 정보 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12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자택격리 대상자 스스로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떠안게 하는 2차 피해 또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지난 11일 박 시장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후처리를 약속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한 발 앞서 나선 박 시장의 행보에 치솟은 지지율 덕분인지 이 사과 '한마디'에 여론은 잠잠해졌다.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박 시장을 다시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민들은 마음 한 구석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만큼 박 시장의 '과잉대응'에 믿음을 주는 시민들이 다수이다. 박 시장과 서울시 개인정보 담당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통감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배려와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

국제거래에서 분쟁 생기면 가능한 한 초기에 해결해야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다. 분쟁의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쟁이 깊어지게 되면 전혀 해법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분쟁은 언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실제로 미국의 B사는 한국의 A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지연해 왔다. A사의 입장에서는 B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계속 독촉만을 하였다.

B사는 A사에게 일부 금액은 회사 주식으로 주겠다고 하여 주식을 받기도 하였으나, 회사가 망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주식일 뿐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든 주식이었다.

세월은 자꾸 가고 계약금액은 대부분 연체가 되었다. B사의 자금사정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B사의 부도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거래업체인 C사도 B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B사는 A사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만약 기다리지 않고 A사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결코 A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A사로서는 B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할 초기에 B사와 분명하게 해결책을 협의하고 그것을 문서화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였다.

만약 B사가 입장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 때 바로 미국에서 소송을 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불안 속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A사로서는 B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A사가 초기에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으므로 B사로서는 A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오해를 하게 만든 점이 없지 않다.

대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사정의 변경이 생길 때 그 변경을 계약문서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김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 사

■ 국방부
△신규 임용 ▷국방전산정보원장 김태화
■ 병무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용학 ▷징병검사과장 김용무
■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오세헌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이준희 △과장급 승진 ▷대변인 서기관 권영학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기술서기관 김광곤
■ 특허청
△과장급 전보 ▷정보활용팀장 윤종석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 박재일
■ 행정자치부
△실·국장급 전보 ▷지방재정세제실장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박제국 ▷전자정부국장 정윤기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이상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남궁영
■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영전략본부장(상임이사) 이판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단장 ▷우정물류기술연구부장 김주완 ▷광인터넷연구부장 김선미 ▷기상위성지상국연구단장 안도섭 △실장·팀장 ▷IoT플랫폼연구실장 김선진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장 김선중 ▷미디어클라우드연구실장 조기성 ▷스펙트럼공학연구실장 홍헌진 ▷마이크로파기술연구실장 송명선 ▷5G코어네트워크연구실장 박노익 통신서비스플랫폼연구실장 금창섭 ▷광전달망시스템연구실장 정태식 ▷광네트워크제어연구실장 변성혁 ▷광전송연구실장 이준기 ▷창의기술정책연구실장 심진보 ▷예비타당성기획연구팀장 송영근 ▷RnD창업전략팀장 김용채 ▷융합기술상용화·멘토링지원팀장 이재기 ▷건설기획팀장 주명혁 ▷시설관리팀장 한재경
■ 한화투자증권
△신임 ▷이정민 리스크관리담당 전무 ▷김일구 투자전략팀장(상무) △전보 ▷문상원 채권운용담당 상무
■ 동의대
▷대외협력처장 겸 다문화사회통합센터소장 조영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장 김철민 ▷〃 부소장 윤혜경

부 고

▲김수권씨 별세, 김태훈(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창훈(한국일보 산업부 기자)씨 부친상, 조현숙(영어강사)·이우재(수원명인중 행정주무관)씨 시부상 = 13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958-2420)

▲윤웅석씨 별세, 윤인대(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정훈(하얀코끼리 대표)·경희(세종대 교수)씨 부친상, 이광수(이광수법률사무소)·심상규(현대자동차)·김현경(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씨 장인상 = 15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2258-5932)

HNT 하나투어리스트

현명한 당신을 위한
여행의 새로운 스타일

세미팩
SEMI PACK

SEMI PACK

세미팩여행이란? **패키지여행+에어텔여행**

세미팩여행은 편리하고 저렴한 패키지여행+자유로운 에어텔을 조합한 경제적이고 똑똑한 여행상품입니다

유럽 세미팩 - BEST -

영국과 프랑스 여행 8일
2,696,000부터
▶ 6월~9월 매주 월,화,목,금,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런던(3)-파리(3)-기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8일
3,458,000부터
▶ 6월~9월 매주 금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로자그레브-스플리트-두브로브닉-자다르-플리트비체-오파티아-블레드-루블랴나

스위스여행 ★융프라우 등반 6일
2,819,600부터
▶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취리히-루체른-인터라켄(4)-베른
● 4인이상 출발 보장, 시내 위치한 호텔 투숙

남태평양 세미팩 - BEST -

괌 ★니코/아웃리거/웨스틴리조트 4일
725,400부터
▶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괌(3) ● 럭키 7+시내관광+현지식 1회

사이판 ★마리아나 리조트 4일/5일
685,400부터
▶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사이판(3/4)

팔라우 ★NEW 블루오션뷰 호텔 5일/6일
829,600부터
▶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팔라우(3/4) ● 일급 NEW 블루오션 호텔 스탠다드룸
● 팔라우아일랜드+스톤머니+박쥐동굴 관광+중식,석식1회

동남아 세미팩 - BEST -

세부막탄 ● 세부(3/4) 4일/5일/6일
★J 파크 아일랜드 막탄스윗 가든뷰
824,100부터
▶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리조트 식사2회 포함, 전신마사지 1시간 제공

나트랑 ★빈펄리조트 5일/6일
1,279,600부터
▶ 6월~9월 매주 수,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나트랑(3) ● 빈펄랜드 자유이용, 중/석식 리조트식

대만/야류 ★1일자유 4일
609,400부터
▶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대만(3) ● 1인자유로 나만의 일정만들기
● 오각선반레스토랑 샤브샤브 특식제공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6.12.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